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

발표자: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토론자: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소장 /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좌 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 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 포럼 주요 발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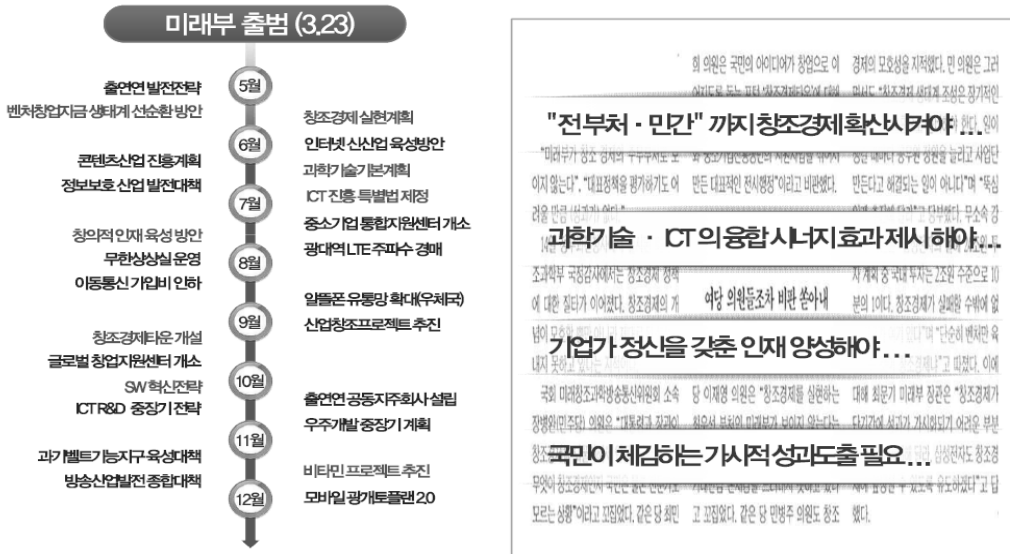
1. 2013년도 성과와 반성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3월 23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로 출발하여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실현했고,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하여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혁신전략과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등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민간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시너지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기업이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타운의 경우 여러 성공적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 개설 이후, 5천 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201건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특허 등록이 안 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화(41건)하도록 도와주거나, 시제품 제작(36건)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를 들자면, 대기업을 퇴사한 최OO씨가 낸 아이디어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창조경제타운 멘토 김OO씨의 자금 투자와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 창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4~5건 정도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게 2013년은 성과와 반성을 오가며 창조경제의 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4년은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해로서, 이를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7개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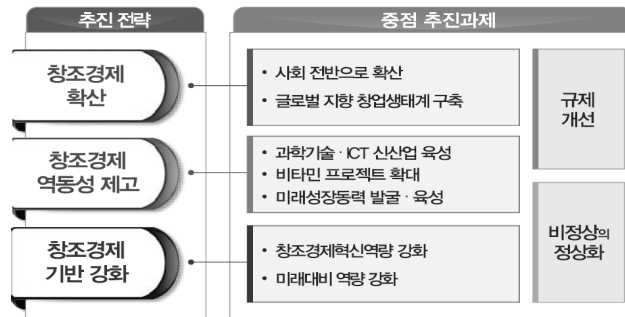
[그림 1] 2013년의 성과와 반성



2. 2014년도 전략과 추진과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3대 중점 추진전략은 창조경제 확산과 역동성 제고, 기반 강화로 3.5%로 떨어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창조경제를 통해 4%로 견인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2014년도 전략과 추진과제



STEPI 포럼 시상중계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과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한다.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전략 사업 발굴, 지역인재 창업, 지역의 경제, 사업 등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개편,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실시, 한국형 탈피오토제 도입으로 창업 엘리트 양성 등 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제도나 교육, 활동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창업하고 혹시 실패하면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안 개선 및 창업 지원 확대, 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ICT 신산업 육성,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먼저 과학기술·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SW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통해 SW산업 규모를 2016년 90조원까지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에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산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제안하였다. 작년에서 시행중인 비타민 프로젝트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확대할 계획이며, 미래성장동력 발굴은 민간 위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중심이 되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역량과 미래 대비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예산, 인력)와 기업·현장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변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R&D 투자 확대 등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함했다. 그리고 미래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및 부처별 융합이 필요하므로 추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수립과 미래 이슈 예측시스템을 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II. 패널토론 내용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이장재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과에 대해 여러 평이 오가지만, 창조경제는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 정체 문제, 국내 규제 문제, 창업과 관련한 내수와 수출 관계, 법안 등을 같이 살펴보는 창조경제 재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미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민관 창조경제 추진단 활성화, 청년과 여성 중심의 창조경제 활동 등 거버넌스 확대 필요. 둘째, 직접적인 공급형 정책보다는 내수 촉진과 수요시장 창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 창출 중심의 정책 필요. 셋째, 과학기술과 ICT 융합에 인문학과 감성적인 부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융합통섭 범위 확대 필요. 넷째, 교육부와의 협업 등을 통한 창의성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필요. 다섯째,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출연(연)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여섯째, 창조경제의 글로벌 역할 강화 필요. 일곱째, 창조경제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역할 수행, 중소기업생산업 증대를 위한 논리 개발, 경제 관련 전문가 참여 등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경제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원의 이정원 부원장은 STEPI를 대표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들이 나온 이유와 각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R&D 혹은 과학기술 차원을 넘어 시스템 이노베이션 혹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 창조경제 혹은 경제혁신계획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혁신 시스템의 필요,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 측면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역할 등 3개의 부분을 가지고 9개의 이슈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과 적합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혁신을 방해하는 6가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미래 전략과 같은 큰 틀을 놓고 세부 정책이나 세부 사업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 혁신의 방향이 정책과 일관되지 않을 때. 둘째, 강력한 드라이브와 문제에 대한 지적만 있을 때. 드라이브와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지만, 문제의 개선 방안과 희망을 보여주는 부분도 필요. 셋째, 추진 주체 간, 정부-민간-공공부분이라든가 정부 내의 부처 간 공감대 형성이 없을 때. 넷째, 실행은 없고 계획만 난무할 때. 다섯째, 새로운 사업과 정책 도입에만 집착할 때. 넷째와 다섯째는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새로운 사업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 여섯째, 세계 최고와 세계 일류에 집착할 때. 세계 최고가 목적이 되다 보면, 실제 활용이나 실용화 측면과 상관없이 최고의 기술만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곱째, 나눠먹기 식의 자원배분이 실행될 때이다.

Ⅲ. 시사점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관련 생태계와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창업이 강조되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적 역량과 산

STEP1 포럼 지상중계

업 역량, 사회적 역량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여러 계획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과학기술 창조생태계 설계를 위해서는 R&D 추진 주체의 명확한 임무 부여와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 생태계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과 개방형 생태계로의 진화가 필요한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창조경제 2차년도 실행 계획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실천 아젠다를 발굴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 삶의 변화와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리 모두 고심하여야 할 때이다. **STEP1**